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경제·문화 협정 체결

文 대통령,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투자확대 위한 '이중과세방지 협약'
文 "기업들 활동 투명성 높이고 양국 간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

현지시간 15일 스페인 국빈방문
만찬·총리와 정상회담 등 예정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현지시간) 비엔나 쇤브룬궁 1층 '그로세 갈레리에'(Groβe Galerie)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유럽 순방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문화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스트리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페인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 도모 차원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를 체결했다. 해당 의정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 등 이중과세방지 관련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 규범 반영 등이 핵심이다.

양국은 '문화협력협정',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교육 협력 의향서' 등도 체결해 문화·예술·청소년 등 양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수교 130주년인 만큼 양국은 다양한 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만큼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 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교류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해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 체결로) 특히 청년, 스포츠, 문화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에 대해 쿠르츠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국 간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관광, 미래세대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수소 산업 관련 양국의 협력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강점을 갖고, 한국은 수소차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수출과 보급에서 1위를 보이는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을 갖기에,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글로벌 현안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고 볼프강 소보트카 하원의장도 면담했다. 소보트카 하원의장과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이 신뢰와 연대, 상생과 포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일정을 마친 뒤 스페인에 국빈 방문한다. 스페인에서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의회 및 경제인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은 2020년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2019년 10월 펠리페 6세 국왕의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됐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자 스페인으로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초의 국빈 방문 접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금액 2위의 건설 강국"이라며 "우리나라와 해외 건설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래 산업, 관광 산업, 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및 국제무대에서의 보건 협력 증진,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대비 차원에서 건설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분야 협력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50개 내수기업 글로벌 진출 본격지원

산업부-코트라, 비즈니스클럽 출범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 지원
올 바우처 발급사업 예산 250억

정부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코트라)는 15일 서울 서초동 인베스트코리아크라자(IKP)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올해 첫 선정된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하고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올해 30억원 규모의 '내수중견' 전용트랙을 신설했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강소·중견기업에게 해외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50억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 규모가 1000만달러 미만인 내수 중심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수출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과 컨설팅 방향을 정해 유형별로 지원한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해외사장과 바이어를 발굴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가 공유됐고,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A사는 2014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등에 따라 2016년 1769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2159억원으로 성장했다. 의류·양말 분야 B사는 2019~2021년 프리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국 시장에 진출해 2019년 월 20만달러의 매출이 신규로 발생했고 2021년 매출은 월 60만~70만달러로 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RPA로 친환경인증 농식품 허위광고 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달 단속 강화
하루 1000개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RPA는 데이터 수집과 입력, 비교 검증 등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농관원 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날로 증가하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수작업 모니터링은 하루 50여건 내외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은 한 번의 클릭으로 하루 1000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뤄지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RPA 시범조사에선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로고와 인증명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걸 적발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군, 韓·美 연합 구조전 훈련 실시

해상재난 구조능력 강화 일환

해군은 지난9일부터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한·미 해군이 선박침몰 등 해상재난 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SALVEX)'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은 매년 양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인도적 훈련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 조난된 인명과 손상된 선체를 구조하고, 항만 및 수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해 선박의 항해를 돕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다.

양국 해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참가자 전원이 PRC 검사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참가자들은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16명, 미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17명으로 편성됐다.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한·미 구조부대원들은 전술토의를 시작으로 항로상 수중 장애물을 제거하는 육상·수중 폭파 훈련,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한 모의 침몰 선박 수중탐색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진해 군항 앞바다에서 양국 잠수사들이 표면공급공기잠수(SSDS)로 수중에서 함정의 손상부위를 신속히 파악해 긴급 복구하는 '손상함정 피해평가 및 긴급 복구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해군은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도 실시했다. 비공개 훈련이만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원되는 등 예년 수준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올 딸기 수출액 4900만 달러… 25% 급증

농식품부, 베트남 점유율 93%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딸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엔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으로 수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 수출액이 1~5월 누계 49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딸기 주요 수출국인 홍콩·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선 한국 딸기 수출 점유율이 92.6%로 중국(7.4%)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딸기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20% 증가한 65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과 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우량원묘 보급과 증식기술 컨설팅을 실시했고 5월엔 기형과율을 낮추기 위한 실증재배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